

‘조선 극예술’ 김우진 친필원고 국가등록문화유산 됐다

국가유산청 ‘이영녀·난파’ 등 4편
“한국 문화·공연사에 중요한 자료”

극작가 김우진(1897~1926)은 조선 극예술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작 ‘난파’, ‘산돼지’ 등은 우리의 문학사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들이다. 첫 표현주의 희곡이라는 가치 외에도 공연사에 남다른 지위를 갖는 작품들이다. 김우진의 친필 원고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돼 눈길을 끈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를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했다. 대표작 ‘두덕이 시인의 환멸’을 비롯해 ‘이영녀’, ‘난파’, ‘산돼지’ 모두 4편으로 김우진의 문학작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김우진은 장성 관아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목포로 이주해 성장했다. 그의 부친은 장성군수를 역임한 김성규이며 조부는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관 역할을 했던 헌관(獻官)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유학을 가 와세다대학 예과에 입학했고 1924년 영문과를 졸업했다. 태생적으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우진은 서구 사상과 문학에 빠져들었다. 사회주의에 관심을 보였는데 대학 때부터 연극에 몰입해 조명학 등과 극예술협회를 조직하고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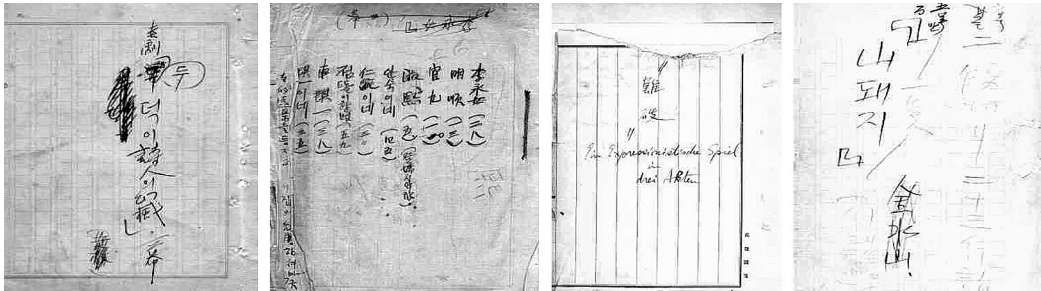
그의 이러한 활동과 사상이 문학에 영향을 미쳤음은 불문가지다. 신파극이 성행했던 1920년대 실험극을 창작한 것은 김우진의 문학에 대한 열망, 경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도전의식이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에 등록된 자료들은 당시의 희곡의 경향을 탈피하기 위해 실험을 기울였던 작가적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근대극의 새로운 문을 열 치고자 했던 시대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먼저 ‘두덕이 시인의 환멸(두덕이 詩人의 幻



최근 김우진의 희곡 친필원고 4편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됐다. 목포문화관 내 자리한 김우진관. <광주일보 자료>



왼쪽부터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국가유산청 제공>

滅’)은 일제 강점기 배경의 희곡이다. 자기모순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개화지식인의 내적 풍경을 날카롭게 파헤친 풍자극 성격을 띤다.

‘난파(難破)’는 유교적 가족구조와 근대라는 상충된 가치관이 부딪히는 과정을 조명한 작품이다. 젊은 시인이 무너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그렸는데 일각에서는 자전적 성격의 작품이라는 평이 따른다.

다양한 기법들이 작품에 투영된 ‘산돼지(山돼지)’는 사회개혁적 의식을 문학적으로 그렸다. 무기력한 자아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채로운 기법을 활용해 문학성을 높였다. 자연주의를 비롯해 상징주의, 표현주의를 차용한 점이 이목을

끈다.

조선 기층 여성의 삶을 구현한 작품도 있다. 1920년대 계몽과 교훈 위주의 신극을 극복하기 위해 창작한 ‘이영녀(李永女)’는 당대 여성의 고달픈 삶을 짚조각해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목포에서 활동하는 김경애 시인은 “김우진 극작가는 극예술의 선구자로 그의 대표 작품들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됐다는 것은 그의 문학 적 성취가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그의 문학 작품들이 더 많이 연구되고 연극으로 각색돼 많은 독자들에게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의 지난해 정기연주회 모습.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제공>

5·18 정신 음악으로 잇는 청소년들 무대

5·18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6일 5·18기념문화센터

5·18의 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평화와 자유, 공동체의 연대라는 가치는 지금을 사는 세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미래로 이어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5·18의 정신을 음악으로 잇는 청소년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김종분)는 오는 6일 오후 5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청소년들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음악으로 익히고 다음 세대로 전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프로그램은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프로이덴스 ‘고장난 시계’, 비제 ‘카르멘 서곡’, ‘Canon Rock’, ‘아프리카 심포니’ 등 에너지 넘치는 레퍼토리가 무대를 채운다. 청소년 특유의 생동감과 밝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구성이다. 찬조 무대도 준비됐다. 지역사회 봉사를 기반으

로 활동하는 ‘블라썸 플루트 앙상블’은 2023년 북구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된 단체로, 노인대학·마을 음악회 등에서 재능기부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황가람 ‘반딧불’, 짜이 ‘예술이야’, K-pop데몬헌터스 OST ‘Golden’ 등 다채로운 곡을 선보인다.

‘더 뮤직 싱어즈 어린이 중창단’도 무대에 오른다. 2024년 창단된 이후 ‘클래식 영재발굴 프로젝트’ 앙상블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단체로, 이날은 ‘꿈꾸지 않으면’, ‘Do-Re-Mi Song’을 통해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조화를 이룬다.

지휘는 백진선이 맡는다.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그는 호남삼육중학교 오케스트라 지휘자, 서구문화센터 그린앙상블 음악감독,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하며 지역 청소년 음악교육에 힘써 왔다. 전석 초대.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무대에 피어난 ‘연륜’

국립남도국악원, 6일 진도 진악당

한 시절을 함께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 오랜 시간 무대를 지켜온 이들이 쌓아 올린 경험은 어느 순간 한 편의 역사이자 예술로 남는다. 국립남도국악원 개원부터 함께한 단원들이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오는 6일 오후 3시 진도 진악당에서 기획공연 ‘연륜’을 무대에 선보인다.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2004년 개원 당시 입단한 이른바 ‘개원 단원’들이 꾸미는 자리다. 국악원과 함께해온 20여년의 시간과 각자의 음악적 여정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대는 국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굿’으로 문을 연다. 개원 단원들은 비나리를 바탕으로 진도북놀이와 무을북춤을 결합해 새롭게 구성한 작품이다. 굿판 특유의 흥과 기운을 힘 있게 전한다. 이어 전통 궁중무의 백미 ‘춘앵전’이 무대에 오른다. 효명세자가 순원숙황후의 사심을 축하하



전통 궁중무 ‘춘앵전’ 한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소리가 돋보인다.

공연의 마지막은 남도의 대표 민요들로 채워진다. 깊은 토리를 품은 ‘육자배기’, 인생의 희로애락을 품은 ‘흥타령’이 이어지며 전통예술의 정수를 들려줄 예정이다. 관람료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레지던시 운영 30년 방향성 진단 포럼

오늘 ‘이동형 창작공간 흔들기’ 주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이 올해로 레지던시 운영 30돌을 맞았다. 지난 1995년 중외공원 내 팔각정 건물을 활용해 ‘팔각정 스튜디오’를 열었는데, 당시 국내 최초의 아티스트 레지던시로 국내 미술계 주목을 받았다.

이후 레지던시 경험을 토대로 옛 근로자 아파트를 개조한 양산동 창작스튜디오(2004~2012), 중국 북경창작스튜디오(2010~2024), 중외공원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2017~), 사직동 청년예술센터(2017~)를 운영해 오고 있다.

시립미술관이 레지던시 운영 3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을 연다. 3일(오후 2시) 시립미술관 본관 1층 로비.

‘이동형 창작공간 흔들기’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포럼은 지난 30년간 진행해온 국내외 레지던시 사업을 토대로 향후 방향성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은 모두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역대 레지던시 참여 작가 신창운(2003~2006 팔각정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이인성(2011 북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올리아 엠스란더(2025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 김민경(2024 청년예술센터 입주작가)의 인터뷰 영상 상영과 30년사를 회고하는 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3개 발제가 예정돼 있다. 먼저 서상호 독립큐레이터가 ‘한국의 레지던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광주에서 묻다!’를 발표한다. 이어 허장수 부산문화재단 창작지원 2팀장이 ‘홍타령 센터를 중심으로 본 아트 레지던시의 변화와 전망’을, 짐 존슨 페슈카 총괄 디렉터는 ‘페슈카의

글로벌 캔버스’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영희 지구발전소와 공동디렉터, 이명훈 예술공간 돈키호테 공동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 예정돼 있다.

윤익 관장은 “이번 포럼은 레지던시 운영 30주년을 맞아 국내외 문화공간이 당면한 레지던시 현안을 다루는 자리”라며 “지금까지 참여했던 예술인들의 고견을 통해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지난 2014년부터 대만(샤오롱 겐저파크), 독일(뮌헨시 문화부 국제레지던시), 일본(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등의 국가와 작가 및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캐나다(아틀리에 서클레어)와 방문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1-9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